

작년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권 30년 요청 기각한 감사원 결정 무시

# 이번엔 27년 연장 요청...막무가내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

“안전 대책은 소홀 권리만 주장하나”

영광군·주민 비난 빚발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는 2042년까지 27년간 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허가 신청서를 영광군에 또다시 제출했다. 감사원의 심사 청구 기각 방침 이후 예방 대책 마련 등의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장기간을 신청, 지역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원전 가동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 신청서를 영광군에 지난 21일 제출했다.

오는 5월로 온·배수 배출 등을 고려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오는 2042년 7월 말까지 27년간 허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게 한수원 요구사항이다.

원전 6개 가동에 필요한 연간 111억 5800여t의 바닷물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27년간 사용할 수 있게된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한수원의 27년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은 지난해 감사원의 심사 청구 기각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영광군이 제출한 의견서에 명시된 ▲온배수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 및 어업 피해 예방대책 미비 ▲방류제로 인한 원전 주변 해양 변화에 대한 대책 미비 ▲애초 허가 조건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의 이유를 참작해 한수원의 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한수원은 요청한 허가 기간(30년)에 못 미치는 4년간만 허가한 영광군 처분에 반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한수원은 이같은 미비점을 반영하지도 않고 또 다시 27년간의 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원전 수명조차 고려하지 않아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작은 사고·고장으로 불안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시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없이 ‘권리 찾기 행태’가 반복되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당장, 한빛 3호기의 경우 지난해 방사성 물질 유출사고가 난데다 최근 6개월에 걸쳐 장기 점검을 받은 뒤 재가동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핵심설비 고장으로 원전이 일시 정지, 불안감을 키웠다.

영광군 관계자는 “한수원이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해 영광수협대책위원회, 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이번엔 아예 허가 자체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항의성 민원이 빙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준윤기자 jlylee@

## 완도 다시마 시험양식장 파손 두달 해경 수사 단서조차 못 찾아 ‘답답’

국내 첫 대량생산 기술 차질 해조류연구소·어민들 난감

해양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가 지원하고 있는 다시마 시험 양식장이 파손돼 국내 최초 대량 양식 기술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내 다시마 양식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시험 양식이지만 해경안전서측은 수사 2개월이 되도록 별다른 단서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다.

22일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서 따르면 완도군 생일면 인근 해상에서 조성된 13ha 규모의 신종 다시마 시험 양식장 중 8ha가 파손됐다는 신고가 지난 2월 20일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완도해경은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거쳐 양식장에 거미줄 형식으로 설치된 그물을 누군가 날카롭게 자른 흔적을 발견했다. 해경은 당시 조류 상황 등을 감안, 빠른 불사를 이기지 못해 양식장 그물에 걸린 선박이 그물을 끊고 도망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양식장은 해조류연구소가 지

난해 12월 ‘다시마 산업육성 생산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어민과 함께 조성한 양식장으로 1ha당 최대 300t 이상 생산이 가능해 시험 양식이 성공할 경우 국내 양식사업 활성화 및 어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오는 5월 수확될 최소 5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1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어민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보수 작업 과정에서 또다시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해경안전서측은 양식장 조성 해역이 VTS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음영구역인데다, 당시 양식장 인근 해역을 지난 선박 등을 확인할 방안이 없는 탓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해조류 연구소 관계자는 “양식장 조성에 들어간 비용 뿐 아니라 국내 최초 다시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험 양식장이 파손돼 시험 결과조차 얻을 수 없게 돼 난처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영산강변 자전거 행렬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교 친수공원 내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열린 ‘자전거 교통안전교실’ 참가 회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영산강변을 달리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지구의 날’ 기념...광주 금남로서 25일 ‘차 없는 거리’ 행사

(4월 22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날’(22일) 45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5·18민주광장부터 금남공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시민 400여 명이 참여해 생명·안전·참여를 주제로 한 청소년 환경토론회·자

전거면허 시험장·정원 무대 만들기 등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북구 양산호수공원·서구 월드컵경기장 등 마을 4곳에서 금남로까지 향

하는 거리 페어리드도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안전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피켓과 조형물을 들고 행진한다.

한편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2015지구의 날 광주위원회’는 온실가스 감축·신재생 에너지 확대·녹색교통 활성화 등 ‘모든 생명이 안전한 도시, 광주’를 함께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유명인 자살 후 한달내 자살 일반인 18%

‘베르테르 효과’ 입증

국내 자살사건의 18%가 유명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명인의 자살이 일반인들 사이에 모방자살로 이어지는 ‘베르테르 효과’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이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교수팀은 2005~2011년 사이 7년간 국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9만4845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 기간 자살 사건으로 TV와 신문에

1주일 이상 보도된 유명인은 모두 13명이었다. 그리고 이들 유명인 13명이 사망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자살한 사람은 1만 7209명으로 전체 자살의 18.1%를 차지했다. 또 유명인 1명이 자살한 후 1개월 동안 하루 평균 자살자는 45.5명으로, 유명인 자살 전 1개월간 하루 평균 자살자가 36.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자살자가 9.4명(25.9%)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자살자 중에서도 20~30대 젊은 여성은 유명인의 자살 방법까지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명인 사망 후 자살률이 크게 높아지는 시점에 이런 경향이 더 강했다. /연합뉴스

## “오늘 내가 쓴다” 돈 자랑한 친구 지갑 턴 동창생



“동창모임에서 ‘오늘은 내가 쓴다’고 돈 자랑한 친구가 술에 취해 잠들자 그의 지갑을 몰래 쥔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2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김모(20)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10분께 광산구 우산동 A호프집에서 의자에 지갑을 흘린 채 잠든 친구 이모(20)씨의 지갑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선 끝까지 오리발

을 내밀었다는 것.

○경찰은 호프집 인근 CCTV를 분석해 김씨가 현금만 쥔 뒤 지갑을 길에 버리는 모습을 찾아냈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고교 동창모임에서 ‘(친구가) 오늘 내가 쓴다’며 지갑에 든 현금 30만원을 꺼내두고 큰소리 치자 순간 욕심이 났다”며 선처를 호소.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